

사회적 지지가 농촌 조손가족 조모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이정화[†] · 최원규^{*}

전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환경복지학과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The Effect of the Social Support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Custodial Grandmothers in Rural Korea

Lee, Jeong Hwa[†] · Choi, Won Kyu^{*}

Departmen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Korea^{*}

ABSTRACT

Family dissolution and economic difficulties of the grandchild's parents are the most prevailing reason for an increase of grandparent-headed families in rural Korea. However, there is a lack of empirical research looking at the experiences of custodial grandmothers, social support, and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formal & informal)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custodial grandmothers in rural Korea. For this purpos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were conducted. Quantitative data were gather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311 grandmothers who were raising their grandchildren in rural Korea as primary care-givers. Statistical methods used for data analysis were descriptive statistic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WIN 19.0 programs. Qualitative data were collected by in-depth interviews to 10 custodial grandmothers in rural a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lmost half of the parents of the grandchild didn't visit and didn't call anymore. Some relatives -aunt, uncle, etc.- support the grandparent-headed family economically and emotionally. 3/4 of the grandparent-headed families were supported by the government and community. This was not small numbers, but the amount of economic support was low. Second, grandmothers in the study showed quite a high level of depression while their happiness level was relatively low.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level of happiness/depression of these rural grandmothers. Overall, the study's results showed the importance of formal & informal support for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custodial grandmothers in rural Korea. Policy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psychological well-being, social support, custodial grandmother, happiness, depression

이 논문은 주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0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습니다.
접수일: 2012년 10월 20일 심사일: 2012년 12월 3일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13일

[†]**Corresponding Author:** Lee, Jeong Hwa Tel: 82-62-530-1326

e-mail: jhlee2@jnu.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오늘날 한국 가족은 그 형태나 기능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가족을 형성하고 있다. 전통적인 3세대 가족이나 핵가족과는 다른 대안적 형태의 가족들(alternative families)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가족들 중 최근 조손가족의 증가추이가 뚜렷하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아동의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조손가족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조손가족은 해마다 그 수가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¹⁾ 조손가족 증가현상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나, 농촌의 경우 가족안정성 약화가 주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지역의 경우 부부의 맞벌이로 인한 조손가족과 가족해체로 인한 조손가족이 거의 반반인(Kim 2006) 반면, 농촌의 경우 대부분이 부부의 이혼, 재혼과 부 혹은 모의 행방불명 등 가족해체로 인한 조손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Kim 2004). 따라서 조손가족의 증가는 우리사회의 이혼과 재혼의 증가현상,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과 가장의 경제적 능력 상실 등과 깊이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IMF 이후 사회적, 경제적 압박으로 가족 기능이 와해되고 가족해체를 경험하는 가정이 증가하면서 부모가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농촌의 조부모에게 맡겨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확대와 같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는 학력과 임금이 낮은 일용직·임시직 남성 노동자들을 빈곤의 위험에 빠지게 할 가능성을 높였으며, 이들의 빈곤은 가족해체를 낳았고, 가족해체의 결과는 조손가족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저소득층의 가족해체가 농촌 조손가족의 증가와 맞물려있다는 사실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Park 등(2003)의 연구에서도 IMF경제위기를 전후로 젊은 부부의 경제적 위기가 가족해체로 연결되면서 자녀 양육을 조부모에게 이양해버리

는 연쇄현상이 일어났다고 하였다.

농촌 조손가족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아동양육 및 교육환경으로서 농촌이 갖는 불리한 여건, 즉 손자녀 교육에 관한 조부모와 부모의 무관심 또는 적절한 환경을 제공할 정보나 경제적 여유의 부재, 그리고 교육적 자극이 적은 지역사회 환경 등으로 인해 복합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 ‘조손가족’ 연구는 ‘저소득층’, ‘결손가정’의 시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Choi 2002; Jung et al. 2005; Kim 2005; Kim 2002; Lee 2004) 조손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등 부정적인 측면이나 조모의 스트레스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농촌 조손가족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이들의 어려움을 개별 가족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방치할 경우 이는 조손가족의 문제인 것은 물론 전체 사회문제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조손가족이 손자녀와 손자녀 양육 조모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리라는 문제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조손가족이 갖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가족이 잘 적응하게 하기 위한 사회적 해결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들은 손자녀 양육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며 그로 인한 즐거움을 느끼고 있으며, 책임감도 강하여(Han et al. 2001) ‘조부모 됨’은 노년기 삶에 긍정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혈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사회에서 조손가족 조부모들은 가족위기 시 부모를 대신하여 손자녀에게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을 갖게 하고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충격을 완화해주는 체계로서 기능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조손가족에서 조모는 손자녀 양육의 주 책임을 진다. 여성은 남성보다 가족 내에서 친족유지자로서의 역할을 맡는 경향이 있으며 아동양육은 남성보다는 여성의 일로 여겨지기 때문이며 가족에게 돌봄노동을 제공해왔던

1) 200~2005년 사이 조손가족의 증가율은 1인 가구, 비친족 가구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Statistics Korea 2005). 지역별로는 도시화 비율이 높은 서울과 울산의 경우 조손가구 비율이 각각 0.22%, 0.21%에 불과한 데 반하여 전라남북도도는 각각 0.71, 0.62로서 3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Statistics Korea 2006).

여성의 가족에서의 역할이 중 노년기까지 확장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부모됨’을 받아들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특성으로 사회적지지를 들 수 있다. 사회적지지는 개인에게 지지와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그동안 학문적 관심을 받아왔다. 사회적 지지가 도시지역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완충한다는 연구들(Choi 2002; Kim 2002; Lee 2004)은 있으나 농촌 조손가족 조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조손가족 연구 중 도시와 농촌을 비교한 연구(Kim 2005), 농촌의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Bae 2006; Chung 2006; Jung et al. 2005)가 있지만 사회적 지지에 초점을 두지 않았거나, 손자녀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거나, 사회적 지지를 단일항목의 단순 측정도구로 사용해서 실제 농촌 조손가족 조모에게 사회적 지원별, 그리고 사회적 지지 정도가 조모의 심리적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보다 분석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농촌 지역사회 환경과의 관련성을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농촌이라는 지역사회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손자녀 양육에 불리한 여건이지만 ‘공동체적인 지역 특성’(Lee et al. 2005)은 이웃과의 사회적 유대감과 같은 긍정적인 과정을 통해 조손가족을 지원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 중에서도 가족에 의한 지지뿐만 아니라 농촌이라는 지역사회나 공적 지지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 역시 밝힐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지지의 지원원은 보통 공적, 사적 지지망으로 구분한다.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에는 1차적인 사적관계망인 성인자녀 관계망으로부터의 지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데, 조손가족 조모대상의 연구에서는 양육손자녀의 부모인 성인자녀의 지지는 다른 성인자녀의 지지와 다를 것이므로, 이를 구분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사적 관계망을 ‘손자녀의 부모’와 다른 성인자녀와 친

척 친구 이웃을 모두 포함한 ‘친척/친구/이웃’이라는 두 가지로 구분하고 지역사회 및 국가로부터의 지지를 공적지지로 구분해서 이들 각각의 지원이 농촌 조손가족 조모의 심리적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조손가족 조모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Ryff 등은 심리적 복지가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측정하는 매우 좋은 변수이지만 심리적 복지를 단일차원의 만족도로 측정하는 것은 심리적 복지의 복합적인 측면을 간과하는 것이므로 여러 하위차원으로 측정해야 한다(Ryff 1989; Ryff & Keyes 1995; Schmutte & Ryff 1997)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심리적 복지의 하위차원으로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는가 여부는 개인이 속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더구나 조사대상의 연령이나 환경 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측정도구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의 조손가족 조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에서, 그리고 보다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도되었던 심리적 복지의 복합적인 척도 보다는 심리적 복지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두 차원, 한국의 노인을 대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행복감과 우울감의 두 차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노년기 삶에 조부모됨의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함께 파악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또한 농촌조손가족 조모의 심리적 복지에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있어 조손가족의 배경특성이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조손가족이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가족형태는 아니지만 최근 새로운 현상으로 출현했고,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조손가족과 관련한 다양한 측면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조손가족 조모의 특성이나 양육손자녀의 일반적 특성, 그리고 조손가족 배경특성이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변수들이 조손가족 조모의 심리적 복지를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살펴보고, 가족과 친척 친구 이웃 그리고 공적지지와 같은 다양한 지지원의 경제적 정서적 도구적 지지가 이들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농촌 조손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부모가 부모역할을 잘하지 못할 때 우리사회는 이러한 부모역할을 조부모에게 의존하게 되는데 이런 대안적인 가족기능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복지정책이나 실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조손가족 조모의 심리적 복지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조손가족을 ‘아동의 부모가 현재 아동과 동거하지 않고 조부모와 18세 이하의 손자녀가 함께 사는 가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때 조부모는 손자녀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 책임을 갖고 최소 6개월 이상 부모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심리적 복지는 주관적이고 전반적인 심리적 안녕감(Andrews & Robinson 1991), 삶에 대한 기쁘고 열정적인 감정과 전반적인 삶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만족감,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와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조손가족의 경우 손자녀 부모세대의 부재로 인해 조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부모에게 손자녀에 대한 부모 역할은 미리 예측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하나의 도전적인 생활사건이 될 수 있다. 이는 신체적인 건강, 경제적 자원, 변화하는 사회에 적합한 아동 양육 기술, 지역사회 교육자원 등의 여러 측면에서 자원이 부족한 손자녀 양육 조모의 심리적 복지에 어려움을 갖게 하는 요인일 수 있다.

조손가족의 형태를 취하는 가족에서 조모의 역할에 대해 상반된 두가지 견해가 있는데, 일반 가정의 조부모 역할을 살펴본 Han 등(2001)의 연구에서 조부모는 손자녀 돌봄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며 즐거워 하고, 책임감 역시 강하게 갖는다고 하였다. 실제로 많은 조부모들이 손자녀의 존재로 인하여 조부모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응답하여 노인에게는 여가시간의 활용,

정서적 안정감, 새로운 역할의 획득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며, 손자녀에게는 사회·심리적 발달, 정서적 발달, 정상적인 가치관 형성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노년기 새로운 역할로서 조부모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조부모 역할의 긍정적인 측면을 주장하였다.

한편, 조부모가 손자녀를 전담 양육할 책임을 맡게 되면서 심리적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건강문제, 재정문제, 사회활동의 제약, 손자녀 양육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 심리적 복지 감소 등을 겪는다는 연구들이 있다. 지금까지의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조부모 역할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손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정서적 고통(Kim 2005), 양육스트레스(Lee 2004), 우울증(Choi 2002) 등 조손가족 조부모의 부정적 심리를 중심으로 접근하면서 조손가족의 부정적인 결과를 중재, 완화할 수 있는 변수를 찾는 과정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 연구들에서 조손가족 조부모의 부정적 심리적 복지는 주로 이들의 부정적인 신체적 건강상태(Kim 2002)와 사회적 지지 부족(Choi 2002; Kim 2002; Kim 2005; Kwon 2000)과 관련됨을 밝히고 있다. 그 외에도 경제적 상태, 배우자 유무, 연령과 같은 조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손자녀의 특성, 손자녀의 정서 행동상의 문제(Hayslip & Kaminski 2005; Kornhaber 1995; Kim 2005; Kim 2006), 조손가족형성배경(Lee & Han 2008)등이 조손가족 조모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조부모 됨은 노년기 삶에 긍정적인 영향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농촌의 조손가족에서도 균형잡힌 시각에서 조손가족이 갖고 있는 긍정적, 부정적 기능을 탐색하고 조손가족 조모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조손가족을 ‘결손가정’이나 ‘가족해체로 인한 무기력한 희생자’로 보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이들을 하나의 온전한 가족형태로 인정해주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기 때문

이다. 사회적 낙인과 편견은 조부모들에게 높은 양육 스트레스를 주는데 이는 조부모뿐만 아니라 손자녀에게도 사회적 고립과 위축감을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의 하나로 조손가족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Lee 2004).

조손가족은 시설에 수용되거나 거리에 방치될 수 있는 아이들을 ‘정서적 유대’가 존재하는 ‘가족’이라는 범주에 머물게 하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노년의 조부모와 어린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족이 너무 불안정한 단위라는 점이다(Han 2007). 그래서 조손가족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교육적 취약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안고 있지만 이러한 가족형태가 조손가족에 속한 아동에게 얼마나 기능적으로 가족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족형태가 우리사회에 주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논의가 균형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농촌조손가족의 조모의 심리적 복지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살펴봄으로써 손자녀를 양육하는 농촌 조손가족 조모의 심리적 복지에 대한 보다 균형잡힌 접근을 하고자 한다.

2. 조손가족 조모의 심리적 복지와 사회적 지지

사회적지지는 중요한 생애전이와 위기를 경험하는 이들의 복지감에 하나의 중요한 잠재자원이 될 수 있다(Caplan 1974; McCubbin & Boss 1980; quoted in Cooke et al. 1988). 그동안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증가해 왔고(Litwak & Kulis 1987; Mullins & Dugan 1990; Seeman & Berkman 1988)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복지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보고하는 연구결과들(Beck & Page 1988; Lowenthal & Haven 1968; Rebecca et al. 2002)이 축적되어왔다. 이 연구들에 의하면 사회적 관계망이 제공하는 지지는 개인의 우울감이나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감소시키거나 심리적 복지감을 증진시키는 등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친다. 또한 사회적지지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나 위기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간접적 경로를 통하여 개인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Thoits 1995; Yoo 2000).

특히, 조손가족 조부모의 경우에는 손자녀에 대한 양육책임과 자신의 노화과정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데 이는 지금까지의 생활에 변화와 적응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중요한 생애전이를 경험하는 이들에게 사회적 지지는 이들의 부담감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Bae 2006; George & Gwyther 1986; Kwon 2000; Lee 2004). 구체적으로 가구 내 다른 성인의 거주여부, 친구나 친척의 방문빈도, 친밀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 사회적 지지의 특성이 조손가족 조부모의 우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Choi 2002; Kim 2005; Lee 2004). 따라서 조손가족 조모가 경험하는 가족, 친척, 이웃, 친구로부터의 지지 그리고 지역사회나 정부로부터의 공적지지는 이들의 심리적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원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적지지는 양적 특성을 나타내는 구조적 측면과 질적 특성을 나타내는 기능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House et al. 1985). 구조적 측면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하는 지지망의 크기나 관계에 해당되는 기술적 자료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구조, 즉, 조손가족 조모에게 지지를 제공하는 대상을 손자녀 부모, 친척/친구/이웃, 공적지지 라는 3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조손가족 조모는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자녀 중에서 손자녀의 부모와 다른 자녀들은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첫 번째 비공식적 지지망으로 손자녀부모를 따로 분리하여 살펴 보았다. 조손가족에게 있어 가장 직접적인 지원은 손자녀의 부모일 것이다.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자녀를 부모님에게 맡겨 양육하는, 손자녀의 부모이자,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성인자녀에 의한 지지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다른 자녀로부터의 지지나 친척, 친

구, 이웃을 묶어 두 번째 비공식적 지원망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조손가족 조모에게 손자녀의 부모 이외의 다른 성인자녀가 여러 가지 지지행동을 할 수 있다. 특히 농촌 조손가족의 경우 가족해체로 인하여 형성된 조손가족이 많으며 상당수는 손자녀의 부모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기에 다른 자녀, 즉 양육하는 손자녀의 삼촌이나 고모, 이모로부터의 지원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친구나 이웃은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선행연구결과에서도 조손가족 조부모는 이웃과의 접촉빈도와 접촉에 대해 만족할수록 고독감이 감소한다(Mullin & Dugan 1990)고 한다. 노년기에 가족이 중요한 지지원이지만 특히 자녀들이 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농촌노인들에게 가까운 거리에 사는 친구나 이웃의 지지는 이들의 심리적 복지에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적지원망인 공무원이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의 지지를 살펴보았다. 서구의 경우 조손가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연구가 축적되었고 그에 따라 조손가족 지지와 관련된 정책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연구결과들도 상당히 축적되었다(Gibson 2002; Hayslip & Patrick 2006; Minkler & Roe 1996). 우리나라에서도 조손가족의 증가로 공적인 지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지지체계는 없다. 지역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사회복지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조손가족 프로그램,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재량권 내에서 할 수 있는 다소의 경제적, 심리적 지원이 있지만 농촌의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사회복지관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 거의 없고, 우리나라 조손가족의 조부모 중 약 14%만이 대리양육가정으로 지정²⁾되어 있다(Bae 2006)는 점에서 저소득층에 국한된 제한된 경제적 지지가 농촌조손가족이 받을 수 있는 공적지원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제한된 수준의 경제적 지지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이 심한

조손가족에게 이러한 지지는 조손가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지원일 수 있다. 따라서 공적 지원이 조손가족 조모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역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측면은 지지 종류에 따라 경제적 지지,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로 구분할 수 있다(Antonucci 1990). 조손가족의 빈곤은 손자녀양육비용 - 음식, 오락, 의류, 학교 준비물, 육아, 교통비 등 - 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고, 손자녀양육을 위해 일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손자녀 보육비용이 들어가는 것 때문이기도 하다(Butler 2005). 우리나라에서는 사교육비 부담도 이에 해당할 수 있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조손가족은 경제적 지지가 필요하게 된다.

거기에 더해 고립감과 우울함 역시 조손가족 조부모에게 보고되는 가장 흔한 문제이기 때문에(Wohl et al. 2003; quoted in Hayslip & Kaminski 2005) 이들의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지지도 필요하게 된다. 조부모에게 있어 손자녀를 전담 양육할 책임을 맡게 된 상황은 규범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손가족의 조모는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고 들어줄 정서적 지지를 필요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러한 정서적 측면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조모의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owers & Myers 1999; Kim & Kim 2004).

마지막으로, 손자녀 양육은 가사노동의 증가를 의미한다. 식사준비, 집안청소, 장보기, 세탁 등에서의 노동시간 증가뿐만 아니라 손자녀 학교 공과금내기, 수업준비물 마련 등 손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른 여러 가지 요구에 반응해야 하는 일이 증가하면서(Musil & Standing 2005) 도구적 측면에서의 도움 역시 요구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도시노인을 중심으로(Choi & Seo 1992; Kim & Kim 2000) 사회적 관계망의 효과를 연구해왔고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사회적 관계망 중 주로 성인자녀를 중심으로 한 세대관계에 관한 연구이거나 단독가구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연구가 되었을 뿐이다

2) 2003년 전국 16개 시도에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립되었고 2012년 현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와 전국적으로 17개 지역에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www.fostercare.or.kr).

(Han 1996; Han & Hong 2000; Lee 1999; Lee 2000). 몇몇 연구들이 농촌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했더라도 도시와 다른 농촌의 가족관계적, 지역적 특성이 분석되지 못했다. 또한 손자녀의 부모, 친척/이웃/친구, 지역사회 및 공적지지체계가 사회적 지지원으로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조손가족의 구조적 특성, 조손가족 형성 동기, 다양한 사회적 지지조모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변화하는 가족에서 공적, 비공식적 지지(가족, 친척, 이웃)가 조손가족에게 갖는 의미, 그리고 농촌의 조손가족이 우리사회에 갖는 기능적 측면 역시 논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기존의 농촌 조손가족 연구가 주로 양적 연구에 치중되어 있어서 이들의 삶에 대한 생생한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질적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이는 양적연구방법과 질적연구방법의 혼용으로, 양적연구를 통해 얻은 연구결과가 질적 연구의 출발점이 되는 방식으로 양적 분석에서 답할 수 없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질적연구를 통해서 얻는 방식이다(Padgett 2005). 인간사회에서는 자연스런 담화를 통해 사람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세상사의 많은 부분이 이루어진다. 심층면접은 연구자가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며 관찰하려는 상황에 대한 폭넓은 견해를 얻으려 할 때에도 이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Cho 2005). 이러한 두가지 방법론의 병행은 양적연구의 결과를 보완하고, 양적연구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관점과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현재 한명 이상의 18세 이하의 손

자녀와 동거하는 농촌의 조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양적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병행했는데, 먼저 양적조사의 표집방법은 사회복지관련 연구회 네트워크를 활용, 본 연구에 협조해 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보하였고 전국 8개도³⁾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면접조사원으로 활용하였다. 자료수집은 예비조사 후 구조화 된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총 327부가 수집되었으나 이 중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부모세대가 간헐적으로나마 동거하는 경우가 일부 포함되었기에 이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311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심층면접조사는 2010년 7월부터 10월에 걸쳐 이루어졌고 조사는 우리나라 농촌지역 중 조손가족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 전북의 일부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참여자 선정은 위해서는 군청 - 면사무소(전북 S군과 전남 Y군, N군)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순차적으로 접촉해서 참여자를 소개받았으며 마을에서는 또 다른 조손가족을 소개받아 가가호호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하였다. 인터뷰를 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터뷰를 거부한 사례는 없었다. 면접법은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방식으로 풀어나가게 하는 비구조화 된 면접방법을 사용하였다. 전체 참여자는 조손가족 조모 10명, 면접은 참여자의 가정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연구자가 조모와 손자녀의 상호작용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였다. 가정 분위기나 참여자의 특징, 표정 등은 현장일지로 기록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면접은 1회, 1시간 20분 ~ 1시간 50분 동안 이루어졌고, 모든 내용은 녹음되었으며 녹음 내용은 참여자의 말 그대로를 옮겨 적었고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측정도구

조모의 특성으로는 조모의 연령, 학력, 결혼지위,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으로 측정하였다. 손자녀 및 조손가족 배경특성으로는 손자녀의 수, 친

3) 조사대상 지역은 경기-강화, 강원-평창/인제/홍천, 전남-나주/무안/완도/곡성, 충북-청원, 전북-완산, 경북-의성 이었다.

손여부(친손/외손), 가장 어린 손자녀의 연령, 건강상태, 양육기간, 그리고 조손가족 형성원인을 측정하였다. 조손가족 형성원인은 ‘손자녀를 양육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라는 개방식 질문을 하여 크게 가족해체, 손자녀 부모의 경제활동으로 구분하고 세부내용을 분석하였다.

사회적 지지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들(Han & Hong 2000; Lee & Kim 1999)을 참고하여 손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해결을 위해 손자녀 부모, 손자녀부모 이외의 성인자녀, 친척, 이웃, 친구, 정부 및 지역 사회 복지관 등으로부터의 지지로 정의한다. 구조적 측면의 사회적 지지원은 ① 손자녀부모 ② 손자녀부모 이외의 성인자녀(딸, 아들, 며느리) 및 다른 친척, 이웃, 친구 ③ 정부나 지역사회 복지관으로 구분하였고 기능적 측면인 지원내용은 앞의 세 가지 유형의 대상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지,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를 각각 얼마나 받는지 한 문항씩 총 3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각의 지지정도에 대해서는 ‘전혀 없음’에서 ‘자주있음’에 이르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손자녀부모지지, 친척/이웃/친구지지, 공적지지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각각 .95, .80, .71이었다.

심리적 복지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두 개의 차원으로 측정하였는데, 행복감은 선행연구(McIntosh & Danigelis 1995; Han & Hong 2000)에서 사용한 ‘긍정적 정서상태(Positive affect)’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내용은 최근 한달 동안 ‘지금 나는 행복하다고 느낀다’, ‘생활에 활기가 넘친다’ 등과 같이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나타내며 총 5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고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우울감은 MIDI(McIntosh & Danigelis 1995)의 부정적 정서상태(Negative affect)를 참고로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가 있다’, ‘걱정거리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때가 있다’ 등 5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고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3. 자료 분석방법

양적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농촌조손가족의 일반적 특성과 조손가족의 형성원인, 사회적 지지, 심리적 복지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독립변수간 관계 및 다중공선성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일반적 특성과 조손가족 형성원인, 사회적 지지가 조모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통계적 처리는 SPSS Win(version 19.0)을 이용하였다.

심층면접 자료는, 사회적 지원별 조손가족 조모와 주고받는 도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이러한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조모의 심리적 복지에 관한 내용들을 분석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양적연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Table 1에서 살펴보면, 연령은 48세에서 80대까지 분포하고 있었는데 60대가 37.7%로서 가장 많았고 70대, 50대, 80대 이상 순으로 많았다. 결혼지위는 배우자가 있는 조모가 43.1%로서 손자녀 양육에 배우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조모가 과반수였다. 학력은 무학이 57.6%로 가장 많았고 초졸이 30.7%로서 전체적으로 초졸 이하가 거의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상태는 나쁜 편, 매우 나쁜 편이 약 64%였고 좋은 편이상인 경우는 6.7%에 불과했다. 경제적 형편에 있어서도 ‘매우 나쁘다’ 혹은 ‘나쁜 편이다’에 약 74%가 응답하고 있어서 농촌 조손가족 조모는 주로 60, 70대가 많고 학력수준이 낮고 건강과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주로 친손자(83.3%)를 키우고 있으며 손자녀를 1명, 2명이상 키우는 경우가 각각 48%, 52%이며 양육기간은 ‘3년 이하’부터 ‘10년 이상’

까지 고루 분포하고 있었다. 어린 손자녀 연령도 중고생 31%, 초등학교 고학년 31%, 초등학교 저학년 23%, 그 이하 14% 정도로 비교적 고루 분포하고 있었다. 조손가족을 형성한 이유가 성인 자녀의 맞벌이인 경우는 9.1%에 불과하고 대부분(90.9%)이 성인자녀가족의 해체와 장애로 인한 것이었다.

심층면접조사 참여자는 60세에서 88세까지의 조손가족 조모 10명인데 이들중 8명은 아들의 자녀, 즉 친손자녀를 돌보았고 2사례는 미혼모로 출산한 딸의 손자녀를 돌보았다. 현재 돌보고 있

는 손자녀의 수는 1명에서 2명이고 손자녀를 돌본 기간은 5년~15년으로 장기간이어서 대부분 학령기 손자녀를 돌보고 있었다. 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의료비, 손자녀 교육비, 급식비의 부담은 없었다(Table 2).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상의 어려움은 심층면접자료에서도 나타나는데, 농촌 조손가족 조모들은 상당수가 손자녀를 키우는데 있어서 자신의 건강하지 못함과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함 때문에 많이 속상했음을 토로하였다.

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 | | | | N=311 | | | |
|--------------------|-----------------------|-----------|---------------------------|---------------------------|-----------|---------------|-----------|
| Variables | | N(%) | Variables | | | | |
| Age | Less than 60 | 37(11.9) | Marriage status | Currently married | 134(43.1) | | |
| | 60~69 | 148(47.7) | | Divorce | 3(1.0) | | |
| | 70~79 | 97(31.3) | | Separation | 2(0.6) | | |
| | 80 and over | 28(9.0) | | Bereavement | 170(54.7) | | |
| Job status | Not employed | 147(47.3) | Education level | No formal edu. | 178(57.6) | | |
| | Other jobs | 22(7.1) | | Elementary Sch. | 95(30.7) | | |
| | Full time farmer | 64(21.1) | | Middle Sch. | 21(6.8) | | |
| | Part time farmer | 16(5.1) | | High Sch. | 10(3.2) | | |
| Health status | Farming, a little bit | 60(19.3) | Monthly income | College & more | 4(1.3) | | |
| | Very poor | 44(14.1) | | Less than \$500 | 164(51.8) | | |
| | | | | Somewhat poor | 155(49.8) | \$500~\$990 | 115(36.8) |
| | | | | Moderate | 91(29.3) | \$1000~1990 | 29(10.1) |
| Somewhat good | | | 20(6.4) | More than \$2000 | 3(0.9) | | |
| Linage position | Very good | 1(0.3) | Economical status | Very poor | 41(13.2) | | |
| | Son's child | 252(81.0) | | Somewhat poor | 188(60.6) | | |
| | | | | Daughter's child | 49(15.8) | Moderate | 74(23.8) |
| | | | | Son & daughter's | 7(2.3) | Somewhat good | 4(1.3) |
| Other (GGC..) | | | 3(1.0) | Very good | 3(1.0) | | |
| GC's health status | Very poor | 6(1.9) | Duration of caring (year) | ~ 3 | 82(26.6) | | |
| | | | | 4~6 | 78(25.3) | | |
| | | | | 7~9 | 49(15.9) | | |
| | | | | 10+ | 99(32.1) | | |
| | | | | Age of youngest GC (year) | ~2 | 14(4.5) | |
| GC's health status | Somewhat poor | 17(5.5) | Age of youngest GC (year) | 3~5 | 29(9.3) | | |
| | | | | 6~8 | 72(23.2) | | |
| | | | | 9~11 | 96(30.9) | | |
| | | | | 12+ | 97(31.2) | | |

* N size can be different by missing

* GC=Grandchild

Table 2.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 | Grandmother | Lineage position(yrs) | Parent of GC | Duration of caring | Reason of custodial parenting |
|----|---------------|-------------------------------------|--------------|--------------------|-------------------------------|
| 1 | Kim (65 yrs) | son's children(15, 12) | eldest son | 10 yrs | runaway of daughter- in-low |
| 2 | Joe (66 yrs) | son's son(12) son's daughter(10) | second son | 5 yrs | runaway of daughter- in-low |
| 3 | Lee (88 yrs) | son's daughter(17) | second son | 15 yrs | divorce of second son |
| 4 | Lee (82 yrs) | son's daughter(12) | eldest son | 7 yrs | divorce of son |
| 5 | S대 (66 yrs) | daughter's daughter(12) | daughter | 10 yrs | unmarried mother(got a job) |
| 6 | Jang (78 yrs) | son's daughter(16) son's son (9) | eldest son | 6 yrs | divorce of son |
| 7 | Jeon (60 yrs) | daughter's sons(13, 11) | daughter | 13 yrs | unmarried mother |
| 8 | Jang (77 yrs) | son's daughter (7) | only son | 6 yrs | divorce of son |
| 9 | Choi (71 yrs) | son's daughter(16) son's son(15) | second son | 9 yrs | divorce of son |
| 10 | Kim (68 yrs) | son's son(13, 10) | third son | 8 yrs | divorce of son |

그래도 (내가) 아파싼게 항시 마음이 불안하
제. 머리도 안좋고, 허리도 파스 발라야 하
고, 다리도 아파...(이씨, 88세)

응.. 돈이 제일 거시기 했지라 돈 같은 것이
젤로 필요했지.....(이씨, 82세)

키움서 어려웠던 것은... 돈이 없응께 어렵
지. 어디 갈 때 할머니인 내가 돈을 쫓까씩
줘. (서씨, 66세)

2. 사회적 지지

조손가족 조모에게 지지를 제공할 사회적 관
계망을 손자녀 부모, 친척/친구/이웃, 그리고 공
적/지역사회지지의 3가지로 구분하여 사회적 지
지 즉, 경제적, 정서적, 도구적 지지가 각각 어떻
게 이루어지는지 Table 3에서 파악하였다.

먼저, 손자녀부모의 지지를 살펴보면, 손자녀
의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
황에서 조손가족을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들 손자녀 부모로부터의 지지가 없는 경우가
과반수였다. 조손가족 조모가 손자녀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약 62%인 반
면, 손자녀 부모로부터 자주 경제적 지지를 받는

경우는 약 14%에 불과하였다. 정서적 지지나 도
구적 지지의 경우도 경제적 지지와 큰 차이 없이
전반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과반수인
가운데 잦은 지지는 13%내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심층면접조사 결과에서도 나타
났는데, 손자녀의 아버지가 자주 오느냐는 연구
자의 질문에 대해서 주로 소식이 없다거나, 아주
가끔씩 오기는 하지만 경제적인 도움이 전혀 없
고 오히려 도와주어야 할 형편이라는 이야기가
주었고, 아이들 학원비를 보내준다는 내용은 단
한 사례였다.

잘 안와요. (일하느라고요?) 모르겠소, 바쁜
가 어쩐가... 집도 없이 그렇게 다니는 갑습
디다. 무심해서 전화도 잘 안하요. (아들이
돈은 좀 보내나요?) 지 앞가림도 못해라...
차도 할부로 샀는가... (김씨, 65세)

생활비 조금 보내주더니 지금은 경제가 어
려우니까 끊어진 지 7개월 정도 되었네(장
씨, 77세)

(아들은 자주 오세요?) 자주 안오제. 아들이

학원비 20만원씩은 보내주요. (조씨, 66세)

다음으로 친척/친구/이웃의 지지를 살펴보았을 때, 먼저 조손가족 조모는 상당 수가 이들로부터 경제적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양육 손자녀 부모 외에 따로 사는 성인자녀들이 자신의 부모와 조카를 위해 경제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빈도에 있어서는 가끔 지원하는 형태가 약 33%로 가장 많았고, 자주 지원하는 경우는 약 12%로 약 45%가 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척/친구/이웃의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는 ‘가끔 있는’ 경우가 약 40% 내외로 나타나 정서적, 도구적 측면에서 상당수가 친척/친구/이웃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조사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즉 친척/친구/이웃들은 각각 그 도움의 내용에 차이가 났는데, 경제적인 도움, 즉 용돈이나 손자녀에게 필요한 물건을 제공하는 대상은 주로 삼촌, 고모, 이모 등의 친척이었고 반찬을 제공하거나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은 주로 이웃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녀에게 컴퓨터는 있어요?) 예, 작은방에, 삼촌들이 사다줬어요. (김씨, 65세)
고모부들이 오고 그러면 용돈도 주고 (이씨, 88세)

(컴퓨터는 있어요?) 지 고모가 헛거 컴퓨터를 줬어.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세

요?) 요 아래 가서 그냥 삼촌 부르지요. (이씨, 82세)

내가 아파서 병원에서 퇴원해갖고 왔을 때, 친한 친구들, 친구들이 반찬 쪼까씩 해 오고 그렇게 살았제, 그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요 것(손녀)들이 뭇을 먹고 살았겄소? 이웃이 고맙제. 국 한 그릇이라도, 김치 한 그릇이라도 갖다 준께.. (조씨, 66세)

나 이려고 산다고 다들 내가 농사 안짓고 산다고 쌀이 아홉 집에서 들어왔어라. 동네에서... 내가 동네에서 인심은 안 잃고 살아라.. (이씨, 82세)

이웃들이 보일러도 고장나면 고쳐주고, 친구 같은 거 같 때.. 내가 그런 거 하나도 모른께... (이씨, 88세)

동네에 한**라고 있는데 그 집도 우리 손녀랑 동갑인 딸이 있어. 오늘도 그집 각시가 우리 손녀를 차로 태워주더만.. 통 그 차 타고 학교 다녔어요. 또 한**씨는 그 형인데 우리 집에 잘 와 우리 손녀를 참 이뻐해라. 우리 애기 공부 가르쳐주고 한문도 많이 가르쳐줬어. (서씨, 66세)

마지막으로 정부나 지역사회서비스의 경우, 약 1/4, 즉 약 25%를 제외하고 나머지 3/4은 정부나

Table 3. Social support from social support network

| Variables | | None | Seldom | Sometimes | Frequent | Total |
|-------------------------------|----------------------|-----------|----------|-----------|-----------|----------|
| Parents of grandchildren | Economic support | 192(61.8) | 28(9.0) | 49(15.8) | 42(13.5) | 311(100) |
| | Emotional support | 161(51.7) | 43(13.8) | 63(20.3) | 44(14.1) | 311(100) |
| | Instrumental support | 174(55.9) | 44(14.1) | 55(17.7) | 38(12.2) | 311(100) |
| Relatives/Friends/Neighbors | Economic support | 124(40.3) | 46(14.9) | 101(32.8) | 37(12.0) | 311(100) |
| | Emotional support | 66(21.5) | 67(21.8) | 136(44.3) | 38(12.4) | 311(100) |
| | Instrumental support | 90(29.7) | 75(24.8) | 111(36.6) | 27(8.9) | 311(100) |
| Government/community services | Economic support | 76(24.4) | 19(6.1) | 95(30.5) | 121(38.9) | 311(100) |
| | Emotional support | 106(34.1) | 99(31.8) | 90(28.9) | 16(5.1) | 311(100) |
| | Instrumental support | 190(61.1) | 71(22.8) | 33(10.6) | 17(5.5) | 311(100) |

지역사회로부터 경제적 지지를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과정이 사회복지사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렇듯 높은 경제적 지지 수혜율은 납득할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자주 받는다’는 응답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약 40%의 응답자가 정부의 정기적인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서적 지지의 경우 면사무소의 사회복지사 등을 통한 상담이 주요 정서적 지지내용이 될 것인데 이러한 정서적 지지를 ‘아주가끔’ 혹은 ‘가끔’ 받는다는 응답자가 과반수로 나타났다. 반면, 공적영역에서 도구적 지지를 받는다는 비율은 매우 낮아, 도구적 지지는 공적영역 아닌, 주로 사적영역을 통해 주로 제공됨을 알 수 있다.

(지원받는 것 있으세요?) 뭐.. 면사무소에서 이따금씩 쌀도 갖다주고 라면도 갖다주고, 이번에는 컴퓨터도 줬어요. (장씨, 78세)

면사무소에서 돈이 안 나오면 못살아. 면사무소에서 생각해서 돈을 타게 해줬어. 그 돈 아니면 못살아요. 날마다 병원 땡겨야제, 병원비는 안 내제 공짜여. 그래도... 쌀도 나와요 20kg 나오다가 10kg 나오다가 그러..(서씨, 66세)

3. 심리적 복지

농촌 조손가족 조모의 심리적 복지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각각 측정하였는데 이는 행복감과 우울감이다. 전반적으로 조손가족 조모의 행복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수범위가 1~5점이므로 중위값이 3점인데, 모든 문항에서 3점 이하의 점수분포를 나타내어 행복감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우울감을 측정하는 다섯 문항에 대한 결과는 행복감과 달리, 전반적으로 중간 값을 보이고 있다. 점수가 높아질수록 더 우울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중위값인 3점을 넘는다는 것은 부정적인 정서를 더 경험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 조손가족 조모의 심리적 복지감을 연구한 Kim(200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Kim(2006)의 연구결과도 조손가족 조모의 행복감은 중간값보다 낮게 나타났고, 우울감은 중간값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조손가족 조모는 전반적으로 보통이하의 행복감과 보통이상의 우울감을 느끼는, 즉 심리적 복지감이 낮은 상태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심층면접에서도 나타난다. 조손가족 조모는 손자녀를 자신이 키워야하는 처지에 대해 비판하기도 하고 체념하고 받아들이기도 한다. 때로는 자신이 서럽고 손자녀가 불쌍한 마음이 들기도 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이러한 상태를 한 참여자는 ‘행복할 것도, 불행할 것도

Table 4. Psychological well-being of custodial grandmother

| | Psychological well-being | Mean(SD) | Mean(SD) |
|------------|---|------------|----------------|
| Happiness | During the past 30 days, how much of the time did you feel calm and peaceful? | 2.49(.82) | 2.77 (3.43) |
| | How much of the time did you feel extremely happy? | 2.38(.85) | |
| | How much of the time did you feel cheerful? | 2.25(.75) | |
| | How much of the time did you feel satisfied? | 2.20(.80) | |
| | How much of the time did you feel in good spirits? | 2.24(.81) | |
| Depression | During the past 30 days, how much of the time did you feel restless or fidgety? | 3.24(1.11) | 3.06 (4.49) |
| | How much of the time did you feel hopeless? | 3.08(1.05) | |
| | How much of the time did you feel that everything was an effort? | 3.35(1.03) | |
| | How much of the time did you feel so sad nothing could cheer you up? | 2.96(1.04) | |
| | How much of the time did you feel worthless? | 2.65(.98) | |

없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저것을... 내가 불쌍해갖고... 불쌍해갖고... 내가 매 한 개를 안 때리고... 그래도 내 새끼라 내가 거시기 키우제라... 근데 때로는 귀찮애. 아침이른 깨우고 또 해 먹일라든... (이씨 82세)

지금 애기들은 얼마나 호강시럽게 커요? 엄마 아빠한테 크든? 그런데 니가 이렇게 호강을 못받고 할머니한테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사냐.(울음) 진짜 바닥에 놓기도 아까웠어. 지그 엄마 아빠는 몰라... (이런 마음을) 알아줄랑가... (최씨 71세)

보람도 없고 행복도 없고 불행도 없고 그냥 지가 잘 커중께.. 바라는 것 없어 (장씨, 77세)

농촌의 조손가족 조모가 가진 정서는 전반적으로 우울하지만, 인터뷰를 진행하다보면 조모로서 느끼는 보람이나 행복감과 관련된 정서가 나타나기도 한다. 손자녀를 키우는 것이 조모로 하여금 양가적인 감정을 갖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어려운 형편에서 부모역할을 하는 것은 힘들고, 귀찮고, 서러운 일이지만 손자녀가 크면서 의지가 되기도 하고, 할머니를 생각하는 손자녀의 마음에 감동하기도 한다. 이는 조모로 하여금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피붙이가 있다는 든든함, 내 가족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함을 느끼게 하고 이는 손자녀 양육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한다.

내가 막 뭐라 해도 부아(화)를 안내. 내가 항상 뭐라고 하제. 애가 나한테는 뭐라고 안혀. 내가 뭐라고 해도 항상 화내고 그런 표정이 없어요. 항상 웃제. 애가 항상 웃는 낯인게 그냥 그러고 살았어...(중략) 그리고 애가 '할머니 일 그만하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내가 감감할 때까지 일하고 있으면 그래. 그것이 좋아(이씨, 88세)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어쩐지 몰랐어. 가(손녀)가 있을께. 심심한지 몰랐어. 동네 사람들도 그러. 00가 없었으면 내가 날마다 울고 다닌대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가가 있을께 좋제. 귀찮을 땐 귀찮아도. (중략) 그리고 내가 언젠가 아침을 안먹고 나갔었는디.. 지가 일어나서 밥이랑 물이랑 반찬이랑 해서 갖고 왔더라고. 밥으로. 음메 내가 울었네. 세상에 할머니가 배가 고프겠다 해서 갖고 왔더라고. 누가 그러졌어요? 누가 시켰었어요? 지가 오장에서 우러난게 갖고 왔제...(서씨, 66세)

나 일 갔다 오고 꿈꿨으면 딱 방에 와서 둘 다 나를 주물러 주고 그래. 지금도 '이빨 하나밖에 없을 때까지 살아. 제발 그때까지 살아 잉? 할머니' 그런당께... 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부러 웃겨. 재밌제.(전씨, 60세)

밖에 나갔다 오면 할머니~ 하고 앞에 딱 틀어 잡고 그러니... 나도 이쁘고.. 반가워서... (웃음) (김씨, 65세)

4. 사회적 지지가 조손가족 조모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가 조손가족 조모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들이 가설검증을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단순상관관계분석을 통해 다중공선성을 살펴본 결과 변수 간 상관관계가 모두 .53이하로 나타났고, 공차한계(tolerance limit)는 모두 0.1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 또한 3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확인 작업 후 조손가족 조모의 심리적 복지, 즉 행복감, 우울감 각각에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1) 사회적 지지가 조손가족 조모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Table 5는 조손가족 조모의 행복감에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위계회귀분석결과이다. 행복감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모델 1에서는 조모의 특성, 모델 2에서는 손자녀 특성 및 조손배경특성을, 모델 3에서는 여기에 사회적 지지 변수를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하는 위계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렇듯 3개의 모델로 다중회귀분석을 하는 이유는 조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조손가족 조모의 심리적 복지에 어느 정도의 설명력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리고 손자녀의 특성과 조손가족 형성원인이라는 배경특성이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변수들이 갖는 추가설명력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사회적지지는 조손가족 조모의 행복감에 설명력이 있는지, 특히 어떤 지지원으로부터의 지지가 행복감에 영향력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심리적 복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신의 건강, 경제적 형편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일반노인이 아닌,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이기 때문에 사회인구학적 특성 외에 조손가족의 특성이 이들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했고, 또한 이러한 변수들이 포함된 후에도 사회적 지지가 조손가족 조모의 심리적 복지에 갖는 설명력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 순서를 이렇게 정하였다.

먼저 모델 1을 살펴보면, 조모의 특성 중 경제적 형편만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자신의 경제적 형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행복감은 더 높게 나타났다. 이 변수는 조손가족 조모 행복감의 8%를 설명하였다. 노인의 경우에는 경제상태 못지않게 건강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데, 이 연구에서는 농촌의 조손가족 조모가 모두 고령의 노인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건강상태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모델 1에 손자녀 특성과 조손가족 형성원인이

라는 변수를 추가한 모델 2에서는 모델 1에서 유의미한 변수였던 경제적 형편이외에 조손가족 형성원인 변수만이 조모의 행복감에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자녀의 수나 친손여부, 양육기간, 건강상태, 연령 등 손자녀의 특성은 조손가족 조모의 행복감에 설명력을 갖지 않았고 조손가족형성원인 즉 가족해체로 인한 조손가족인지, 아니면 자녀세대의 맞벌이로 인한 것인지가 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사실 가족해체로 인한 조손가족인 경우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다양한 측면의 자원결핍과 관련되는 부분이 많아 단순한 조손가족 형성이유 이상의 보다 복합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변수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적 특성이 결과적으로 조손가족 조모의 행복감을 상당부분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모델 2에서는 전체 설명력이 11%로 나타났다.

모델 3에서는 모델 2에 사회적 지지변수군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손자녀부모로부터의 지지가 많을수록 조손가족 조모의 행복감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에서는 조모의 특성에서 경제적 형편은 여전히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고, 모델 2에서 의미있는 변수였던 조손가족 형성원인의 설명력은 없어진 대신 손자녀부모의 지지가 의미있는 변수로 등장하였다.

결국 손자녀부모의 지지가 많다는 것은 손자녀의 부모가 이 손자녀의 양육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조손가족 조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연결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Thoits(1995)의 사회적 지지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 있으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사회적지지 제공자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지원이 되는 손자녀 부모의 지지가 조모의 행복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지원 중 손자녀부모의 지지만이 조손가족 조모의 행복감을 증가시켰다. 모델 3의 전체 설명력은 14%이고 사회적 지지의 추가 설명력은 3%로서 의미있는 수준이었다.

심층면접대상 중에는 조손가족 조모에게 손자녀 부모의 지지가 많은 경우는 없었다. 손자녀

Table 5. The effect of the social support on the happiness of custodial GM

| Variables | Happiness | | | | | |
|--|-----------|---------|---------|---------|---------|---------|
| | Model 1 | | Model 2 | | Model 3 | |
| | B | β | B | β | B | β |
| Characteristics of GM | | | | | | |
| Age | -.01 | -.02 | .00 | .00 | -.00 | -.01 |
| Marital status* | .07 | .05 | .06 | .04 | -.05 | -.02 |
| Educational status | .04 | .05 | .01 | .01 | -.04 | -.01 |
| Health status | .03 | .04 | .02 | .03 | .02 | .01 |
| Economic status | .22 | .23*** | .21 | .22*** | .80 | .17* |
| GC and background characteristics | | | | | | |
| Number of GC | | | .04 | .04 | .04 | .02 |
| Lineage position* | | | -.02 | -.01 | .03 | -.00 |
| Period of caring | | | .00 | .02 | .01 | .07 |
| Health status of GC | | | .04 | .05 | .03 | .05 |
| Age of youngest GC | | | -.01 | -.02 | -.02 | -.05 |
| The reason of custodial grandparenting* | | | .41 | .17** | .14 | .06 |
| Social support | | | | | | |
| GC's parent support | | | | | .13 | .19* |
| Relatives/friends/neighbors support | | | | | -.01 | -.01 |
| Formal support | | | | | -.07 | -.09 |
| Constant | 1.77 | | 1.58 | | 1.55 | |
| F | 4.84*** | | 3.05*** | | 3.24*** | |
| R ² | .08 | | .11 | | .14 | |
| R ² change | | | .03 | | .03* | |

* Dummy variables

- 1) Marital status : married 1, not married, 0
- 2) lineage position: son's children 1, daughter's children 0
- 3) The reason of Custodial grandparenting: double earner 1, family dissolution 0

** GM: Grandmother, GC: Grandchild

부모 아닌, 다른 성인자녀들이 다양한 지지를 제공하는 경우는 있었고 이러한 성인자녀의 지원은 조모의 힘을 덜어주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성인자녀의 지지는 조모의 행복감을 높여줄 만큼은 안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근디 애들이 방학하믄 한달 동안 이모가 키워줘. 학교서 엄마 모시는 행사를 하믄 이모가 지 새끼 학교 보내놓고 돈 갖고 와서 사 맥이고.. 엄마 역할을 다 해. 지 이모는 별

일이 있더라도 와서 다 하제. 그러니까 내가 살기가 더 수월하제 (전씨, 60세)

2) 사회적 지지가 조손가족 조모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우울감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델을 살펴보기로 한다(Table 6). 사회적 지지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도 행복감 모델과 동일한 3개의 모델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모델 1을 살펴보면, 조모의 특성 중 조모

의 학력,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이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조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그리고 경제적 형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우울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모의 건강상태는 행복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우울감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조모의 연령이나 결혼지위는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세 변수가 조손가족 조모의 우울감에 가진 설명력은 11%로 의미 있는 수준이었다.

모델 1에 손자녀 특성과 조손가족 형성원인이

라는 변수를 추가한 모델 2에서는 모델 1에서 유의미한 변수였던 조모의 학력,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이 여전히 의미있는 변수이면서 손자녀 수와 조손가족 형성원인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손자녀 수가 많을수록, 조손가족이 손자녀세대의 가족해체로 이루어진 경우 조모의 우울감은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울감은 조손가족 조모와 손자녀, 그리고 배경특성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지지 변수 군을 추가한 모델 3에서는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조손가족형성

Table 6. The effect of the social support on the depression of custodial GM

| Variables | Depression | | | | | |
|--|-------------|--------------|--------------|--------------|-------------|--------------|
| | Model 1 | | Model 2 | | Model 3 | |
| | B | β | B | β | B | β |
| Characteristics of GM | | | | | | |
| Age | .00 | .02 | .00 | .02 | .00 | .02 |
| Marital status* | -.09 | -.05 | -.07 | -.04 | -.06 | -.03 |
| Educational status | -.16 | -.15* | -.14 | -.13* | -.14 | -.13* |
| Health status | -.17 | -.15* | -.15 | -.13* | -.13 | -.11 |
| Economic status | -.20 | -.16* | -.17 | -.13* | -.13 | -.10 |
| GC and background characteristics | | | | | | |
| Number of GC | | | .19 | .14* | .18 | .14* |
| Lineage* | | | -.15 | -.06 | -.20 | -.08 |
| Period of caring | | | .00 | .01 | -.01 | -.04 |
| Health status of GC | | | -.12 | -.11 | -.12 | -.11 |
| Age of youngest GC | | | -.05 | -.07 | -.05 | -.06 |
| The reason of custodial grandparenting* | | | -.47 | -.15* | -.18 | -.06 |
| Social support | | | | | | |
| GC's parent support | | | | | -.10 | -.12 |
| Relatives/friends/neighbors support | | | | | .00 | .00 |
| Formal support | | | | | .15 | .13* |
| Constant | 4.37 | | 4.83 | | 4.72 | |
| F | 6.67*** | | 4.85*** | | 4.53*** | |
| R ² | .11 | | .16 | | .19 | |
| R ² change | | | .05** | | .03* | |

* Dummy variables

- 1) Marital status : married 1, not married, 0
- 2) lineage: son's children 1, daughter's children 0
- 3) The reason of Custodial grandparenting: double earner 1, family dissolution 0

원인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조모의 학력과 손자녀 수는 여전히 우울감에 영향력을 보이는 가운데, 공적지지정도가 우울감에 의미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공적지지 수혜가 조모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은 조손가족 조모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형편, 그리고 조손가족형성원인의 효과를 상쇄하고서도 나타났다.

즉, 공적지지를 받을수록 우울감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Bae(2006)의 연구결과, 공적지원망의 정서적 지지가 많을수록 손자녀양육 조모의 심리적 안녕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구자는 아직껏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한 일부 계층만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실태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Choi(2002)의 연구에서도 공적 지지와 우울 간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공적지지가 심리적 어려움이나 문제를 제대로 해소시켜주지 못하면서 낙인감을 주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농촌조손가족에 대한 공적지지가 우울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모델 3에서 공적지지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주관적 건강상태와 주관적 경제상태의 효과가 사라진 것과 관련해서 해석이 가능하다. 조모의 우울감 증가는 공적지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공적지지가 특별히 낮은 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적지지를 많이 받는 조모는 상대적으로 형편이 더 좋지 않고 건강상태도 나쁘기 때문에 공적지지는 경제적으로 일부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우울감을 낮춰줄 정도는 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공적지지를 많이 받는 조손가구일수록 이미 우울감을 더 느낄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모델 3의 전체 설명력은 19%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가 갖는 추가설명력도 3%로서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층면접에서는 공적서비스가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모에게 양가적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수급자로, 영세민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 수 있었겠나’ 하는 조모들이

많았는데, 특히 조모 자신의 병원비나 약값 걱정에서 해방되었음에 감사하였다. 그러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마음이 안 좋아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공적지원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서 이러한 지원이 달가우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이러한 처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조손가족 조모를 더 우울하고 염치없다는 생각이 들게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이 정부의 지원에 그저 감사할 수만은 없어서 부정적인 정서를 갖게 됨을 보여준다.

면에서 여기 반찬 쪼개 갖다 주는 것도 마음이 아파 죽겠어. 내 새끼가 이런 것 받아 먹고 살게 됐다.. 해서. 영세민으로 사는 것이 마음이 아파.. 이런 것들이 다 세금 받아서 주는 것을 나만 못한 사람 주지 싶제. 나보다 더 못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니요, 자식도 없고 혼자 살고 그런 사람 쥐야제... (이씨, 88세)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농촌조손가족 조모의 심리적 복지에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변수간의 관계를 보는 데 있어 조손가족의 배경특성이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는 조손가족이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가족형태는 아니지만 최근 새로운 현상으로 출현하고 있고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가 이들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조손가족 조모의 특성이나 양육손자녀의 일반적 특성, 그리고 조손가족 배경특성이 손자녀 양육 조모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배경변수들이 조손가족 조모의 심리적 복지를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살펴보고, 가족과 친척 친구 이웃 그리고 공적지지와 같은 다양한 지지원의 경제적, 정서적, 도구적 지지가 이들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농촌 조손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손가족의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기 위해 손자녀 부모, 친척/친구/이웃, 공적영역 각각의 지지원으로 부터의 경제적, 정서적, 도구적 지지 정도를 살펴보았다.

가족해체로 인해 조손가족을 취한 가구가 90% 이상이 된 만큼 손자녀부모는 조손가족과 멀리 살거나 연락두절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자주 연락하지도, 방문하지도 않으며, 심지어는 사망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접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조손가족 조모에게 가장 중요한 지원원은 현재 양육하는 손자녀의 부모로부터의 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손자녀 부모로부터의 지지가 전혀 없는 경우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40~50%만이 손자녀의 부모로부터 간헐적인 경제적, 정서적, 도구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척/친구/이웃의 지지정도를 살펴본 결과, 경제적으로 지원받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가꿈' 지원받는 경우가 약 33%정도 되었다. 이 경우 주로 손자녀의 부모 아닌, 아동의 고모, 삼촌과 같은 성인자녀들로부터의 지원이었다. 이들로부터 정서적 지지나 도구적 지지를 가꿈 혹은 자주 받는다는 응답은 약 50% 내외로 많았다.

손자녀 부모나 친척/친구/이웃은 공통적으로 사적지지망에 속하는데, 사적지지망에서의 경제적 지지는 보다 가까운 혈연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는 그 외 친척/친구/이웃 지지망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적지지만 정부나 지역사회에서 받는 지지를 살펴보았을 때, 경제적 지지가 전혀 없는 경우는 약 1/4에 그쳤고 나머지 3/4는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촌의 조손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고 또한 본 연구의 조사방법이 면지역의 사회복지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으로 편포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농촌의 조손가족에 대해서 경제적 차원의 공적지원이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기관들로부터 약 60%의 조손가족 조모가 '아주 가꿈' 혹은 '가꿈'이냐 손자녀 양육과 관련한 상담을 공적 영역에서 받고 있다는 사실은 농촌에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어느 정도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심층면접결과, 이러한 공적지지는 특히 의료비, 교육비와 같은 조손가족에게 필수적인 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어 빈곤 조손가족이 생활해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조손가족 조모의 심리적 복지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행복감은 중간이하로 나타났고 우울감은 중간점수를 상회하는 결과로 나타나 조손가족 조모의 심리적 복지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손가족 조모의 심리적 복지에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지 중 손자녀부모의 지지는 조손가족 조모의 행복감에, 공적지지는 우울감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손가족 조모는 경제적 형편이 좋을수록, 그리고 조손가족 형성원인이 가족해체가 아닌 경우 행복감이 높았는데 사회적 지지변수 군이 투입된 세 번째 모델에서 손자녀부모의 지지는 조손가족형성원인 변수의 효과를 상쇄하고 경제적 형편의 효과를 약화시킬 정도로 행복감에 의미 있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사실 경제적 형편과 조손가족 형성원인, 그리고 손자녀부모의 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변수이지만 손자녀부모의 지지가 가장 강력하게 조손가족 조모의 행복감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농촌 조손가족에게 손자녀부모의 관심과 지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성인이, 특히 자녀가 있는 성인이 부모역할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농촌조손가족의 특성상 손자녀 부모세대가 지원을 할 수 없는 형편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상기해볼 때 이들을 대체할만한 지원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동의 삼촌과 고모 등 다른 가족원이나 친척은 아주 활발하지는 않지만 친구나 이웃보다는 경제적인 도움

등 보다 현실적인 지지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반적으로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농촌의 조손가족에게 공적지원이 이에 대한 대안이 되고 있으나 농촌 조손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공적 지지는 이들의 행복감을 증가시키는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지지가 조손가족 조모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모델에서는 공적영역의 지지가 오히려 우울감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공적지지가 조손가족 조모의 우울감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일까? 사실은 건강이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는 공적지지의 효과이기 보다는 공적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들의 우울감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조손가족에게 공적지지가 제공되기는 하지만 조손가족 조모의 심리적 복지감 특히 우울감을 완화시키기에는 너무 부족한 정도의 지원이 제공되기 때문이 아닌지 하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손가족은 적은 소득과 그로인한 지출규모의 한계로 열악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농촌의 조손가족 조모들은 그들이 감당하지 않았다면 우리 사회가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감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공적지원 제공확대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농촌조손가족의 복지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경제적인 지지 외에 손자녀 보육, 양육,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필요 즉, 교육서비스나 상담서비스 등 농촌조손가족의 욕구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전국 농촌의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편의표집으로 대표성 있는 자료에 의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둘째, 조손가족 조모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심리적 복지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조부의 역할이나 조부의 심리적 복지 등을 살펴볼 수 없었다. 후속연구에서는 일반화가 가능한 대규모조사를 통해 조부모가 함께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은 조부와 조모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조모만으로 이루어진 조손가족과 세대관계나 손자녀와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다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손자녀 특성 및 조손가족 배경특성이 손자녀 양육조모의 심리적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과, 조손가족에게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에 있어서 사회적 지원망과 공적지원망으로 나누고, 사적지원망은 손자녀 부모 지지와 그 외 친척/친구/이웃 지지로, 즉 모두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손자녀의 부모 대신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종류의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지 분석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Andrews FM, Robinson JP(1991)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series. San Diego : Academic Press.
- Antonucci TC(1990) Social supports and social relationships, In RH Binstock, LK George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3rd Edition.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Bae JH(2006) Impact of parenting stres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focusing on the buffering effect of social suppor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Beck SH, Page JW(1988) Involvement in activities an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retired men. Activities, Adaptation & Aging 11(1), 31-47.
- Bowers BF, Myers BJ(1999) Grand mothers providing care for grandchildren : Consequences of various levels of caregiving. Family Relations 48, 303-311.
- Butler SS(2005) Supporting maine's families : Recommendations from maine's relatives as parents project, a policy white paper. Presented at the 58th Annual Scientific Meeting of the GSA, Orlando, Florida.

- Cho YD(2005) Qualitative research method of institutional settings. Kyoyookbook.
- Choi HK(2002) Depression in low income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and its related factors. J Korea Gerontol Soc 22(3), 207-222.
- Choi JA, Seo BS(1992) A study on the social support network of the urban elderly. J Korea Gerontol Soc 12(1), 65-78.
- Chung IS(2006) Transition of the rural society and grandparents headed families.- Focus on the formation of grandparents headed families.- presentation paper in joint conference of Family Relations and The Korea Rural Sociological Society. 11-38.
- Cooke BD, Rossman MM, McCubbin HI, Patterson JM(1988) Examining the definition and assessment of social support: A resource for individuals and families. Family Relations 37(2), 211-216.
- George LK, Gwyther LP(1986) Caregiver well-being : A multi-dimensional examination of family caregivers of demented adults. Gerontologist 26(3), 253-259.
- Gibson PA(2002) Caregiving role affects family relationship of african american grandmothers as new mothers again: A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J Marital & Family Therapy 28(3), 341-353.
- Han GH(1996) A studies on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of rural elderly.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174-224.
- Han GH(2007) Quality of life of custodial grandparents. Presentation paper in fall conference of The Korea Family Welfare Association.
- Han GH, Hong JK(2000) Intergenerational social support exchang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parents. Family & Culture 12(2), 55-88.
- Han HJ, Ryu CH, Lee YS(2001) Perceptions of the elderly on their helping behavior for grandchildren. Inter J Welfare Aged 11, 195-211.
- Hayslip B, Kaminski PL(2005) Grandparents raising their grandchildren: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suggestions for practice. Gerontologist 45(2), 262-269.
- Hayslip B, Patrick JH(2006) Custodial grandparenting.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House JS, Kahn RL, McLeod JD, Williams D(1985) Measures and concepts of social support. In Cohen CE, Syme SL(Eds.), Social support and health. Orlando, FL: Academic Press.
- Jung JS, Lee HK, Park HS(2005) A study on the grandparenting role with low income skipped-generation families. J Open Assoc Early Childhood Educ 10(3), 317-337
- Kim CS, Kim IK(2000) Patterns of intergenerational support exchange and the life satisfaction. J Korea Gerontol Soc 20(2), 155-168.
- Kim DY(2006) Psychological well-being of custodial grandmothers and related fact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 Kim HS(2004) A study of the influence of grandparent's attitude to bring up, care stress on grandchildren's adjustment in grandparent-grandchildren family. J Korean Soc Child Welfare 18, 85-117.
- Kim HS(2005) A study on the emotional distress of low income custodial grandparent raising grandchildren in country and city. Inter J Welfare Aged 28, 341-378.
- Kim JE(2002)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well-being of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in poverty and its influential factors. Graduate school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Kim MH, Kim HS(2004)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grandparent's life satisfaction in low income grandparent-grandchildren family. J Korea Gerontol Soc 24(3), 153-170
- Kornhaber A(1995) Contemporary grandparenting. SAGE Publications.
- Kwon IS(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urden and the social support of grandmothers caring their grandchildren. Korean J Child Health Nurs 6(2), 212-223.
- Lee HJ(2004) The influence of the grandparenting stress on custodial grandparent's mental health: Focus on the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wha Women's University.
- Lee HS(1999) Social support exchanges of the rural elderly living with their spouse. J Korea Gerontol Soc 19(3), 109-120.
- Lee JH, Han GH(2008) Intergenerational triads of grandparent-headed famil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custodial grandmothers in rural Korea. J Korea Gerontol Soc 28(1), 177-196.
- Lee JH, Kang KH, Jung NS, Park GJ, Yoon SD(2005) Improvement strategies for optimum usage of community facilities by the rural elderly in Korea. Korea Soc Rural Planning 11(3), 19-27.
- Lee MA(2000) Intergenerational reciprocal care and elderly living arrangements in Korea. J Korea Gerontol Soc 20(3), 129-142.
- Lee YJ, Kim TH(1999) A study on the buffer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stress of the elderly who lives alone. J Korea Gerontol Soc 19(3), 79-93.
- Litwak E, Kulis S(1987) Technology, proximity and measure of kin support. J Marriage & Family 49, 649-661.
- Lowenthal MF, Haven C(1968) Interaction and adaptation: Intimacy as a critical variable. Am Sociol Rev 33(1), 20-30.
- McIntosh RD, Danigelis NL(1995) Race, gender and the relevance of productive activity for elder's

- affect. *J Gerontology* 50B(4), 229-239.
- Minkler M, Roe KM(1996) Grandparents as surrogate parents. *Generations* 20(1), 34-38.
- Mullins LC, Dugan E(1990) The influence of depression, and family and friendship relations, on residents' loneliness in congregate housing. *Gerontologist* 30, 377-383.
- Musil C, Standing T(2005) Grandmothers' diaries: A glimpse at daily lives. *Inter J Aging & Human Develop* 60(4), 317-329.
- Padgett DK(2005)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SAGE Publications.
- Park CS, Lee YS, Chung IS(2003) *Raising grandchildren and policy in rural elderly women*. Gyeongbuk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 Ryff CD(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 Personality & Soc Psychol* 57, 1069-1081.
- Ryff CD, Keyes CLM(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 Personality & Soc Psychol* 69(4), 719-727.
- Schutte PS, Ryff CD(1997) Personality and well-being: What is the connection. *J Personality & Soc Psychol* 73, 549-559.
- Thoits PA(1995)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processes: where are we?, what next? *J Health & Soc Behavior(Spec No)*, 53-79.
- Yoo JA(2000) *The effect of supportive and negative interactions upon low-income single-mother's psychological di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